길을 묻는 이에게

제677호 현대불교
2008년 4월 30일(음력 3월 25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괴로워도 즐거워도 그냥 빙긋이 웃고 마세요!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

문 저의 친구가 요즘 시대는 자식들이 부모님의 생신도 제대로 챙기지 않는 시대인데,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생일을 이렇듯 성대하게 치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데 저는 절에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다운 의미를 일러 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새벽예불에 팔상성도를 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는 밖으로 부처님의 탄생을 기리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을 탄생시켜 준 부모의 은혜와 법의 부모의 은혜도 둘이 아니게 갚기 위해서 항상 각자 마음에다 관(觀)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육의 부모들도 자식과 둘이 아닙니다. 그걸 볼 때, 자신의 생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낳아 주시고, 또 일러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을 기리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촛불 하나라도 켜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따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법의 부모도 육의 부모도 둘이 아니게 한마음으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관하면서 촛불을 켜신다면 그 촛불이 바깥으로는 형식이 되지만, 형식만이 아니라 정성이 되고 안으로는 진짜 촛불을 켜는 것이 됩니다. 마음의 촛불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월초파일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팔상성도(八相成道)라고 하는 그 자체는 도솔내의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하항마상, 녹원전법상, 쌍림열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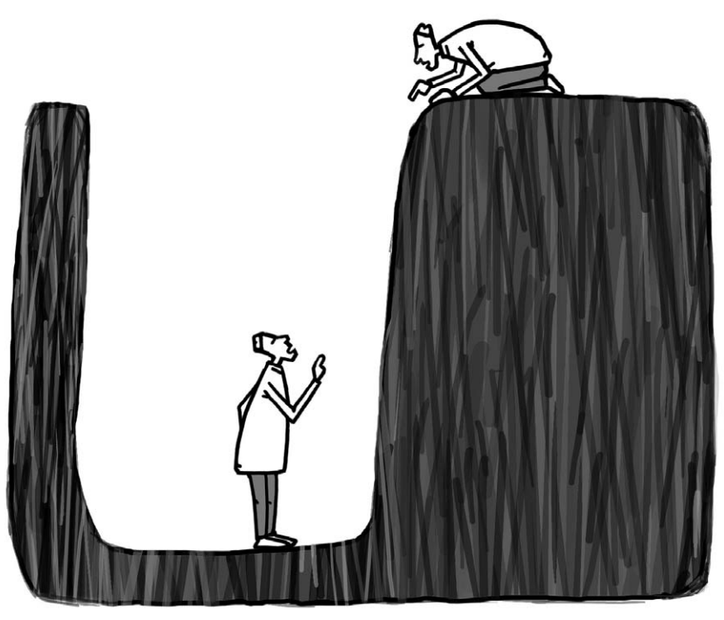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렇게 여덟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여덟 가지로써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모든 과정과 그 시대에 간곡하게 가르쳐 주신 그 뜻을 기리면서 우리는 수행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무 사유(四無四有)가 둘 아니게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셨다'고 한다면 팔상성도의 그 여덟 가지 문제를 다 함축해서 한마디로써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과정을 거치는 자체를 뼈 한 무더기로 비유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들어서 아시다시피, 사생자부(四生慈父)라고 하는 그 뜻도 역시, 태로 낳고 알로 낳고 화(化)해서 낳고 질척한 데서 낳고 하는 사생들을 모두 자기 아님이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 아닌 게 없이 했고, 자기 아픔 아닌 게 없이 했고, 자기와 더불어 같이 한도량에 있는 것을 제시했고, 또 모든 것을 둘 아니게 흡수해서 인연을 지으셨으니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불가에선 나유타 겁이라고 합니다마는, 나는 광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돼 보기도 하고 자식이 돼 보기도 하고 형제가 돼 보기도 하고, 그렇게 나오면서 자기 근본으로 인하여 진화를 해서 바로 형성되고 또 진화되고 형성되고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업적이 얼마나 컸는지 헤아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를 볼 때, 우리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공기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고 바로 수억겁 광년을 거친 그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고, 미래로 돌아갈 수도 있고, 현재 또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인생살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공부를 함으로써 바로 그 뜻을 잘 파악해서, 바깥으로만 탄신을 기리고 팔상성도를 이름으로 기릴 게 아니라,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항상 직결돼 있다는 사실을 믿고 행한다면 그것이 곧 실천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팔상성도를,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열반하시고 그런 과정에 대한 것만 달달달달 외우고 알면서 바깥으로 끄달리면 아니 되겠죠.

그건 왜냐하면 부처님의 마음은 내 마음과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너부터 알아야 내 마음도 알아서 둘이 아니게 되느니라. 그래서 일체 사생이 너와 더불어 둘이 아니니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고로 이것은 내 마음의 부처님을 항상 관하며 '주인공'이라고 하면 벌써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부모도 법의 부모도 일체 가정의 모든 분들도, 한 식구 한 형제라 할지라도 앞에 닥치는 대로 걸리는 대로 거기다 놓고 합류시켜라. 하나로 만들어라. 동일한 한마음으로 결부를 시켜라. 그렇게 된다면 걸림이 없어서 어떠한 난국도 대치하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에서 이렇게 말하죠. "부(父)와 자(子)가 상봉해야만이 저승의 공부를 한다. 보이지 않는 정신계의 공부를 한다." 하고요. 부의 손을 잡아야만 자는 무(無)의 세계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봉치 못하면 아니 되는 거죠. 법의 부모란 나를 형성시켰고 또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온 자기의 근본 뿌리인 불성입니다. 불성 자체가 바로 자기의 원래, 법의 부니까요. 육신을 낳아 준 이는 육신의 부모고요. 그것은 내 근본의 법의 부모로부터 그 육의 부모를 빌려서 낳은 거지 내 영원한 그 자체의 불성이 아니었더라면 그 부모도 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월초파일이 돼서 촛불을 켜시더라도 육의 부모와 법의 부모가 둘 아니게 켜야 합니다. 내 주인공이 법의 부모니까요.

화내는 제 자신이 싫습니다

문 화를 내는 저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한번 화를 내게 되면 물건도 던지고 입에선 험한 말이 나오고, 생각으론 '주인공'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도 화내고 싶어 하니 이대로 가다간 아이에게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 따로 몸 따로 감정 따로 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딸아이가 저를 때리고 물건도 던지고 제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스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실도 없다 이랬죠? 왜 그런가. 한 찰나의 살림살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한테 항상 말하죠. 우리의 살림살이는 한 찰나요, 한 인생 살아나가는 것은 한 철이라고. 여러분이 한 찰나의 살림살이를 지금 하고 가는 겁니다. 요리 변덕 조리 변덕, 변덕쟁이 거든요. 변덕쟁이, 도깨비장난, 귀신 장난감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걸 말로 하려니까 그렇지 여러분은 변동이 무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공(空)에 들어서 가만히 있다면 그건 목석인 거죠. 또 너무 말을 하고 너무 아는 척을 해서 한데 떨어뜨린다면 그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내는 겁니다, 그냥. 거기도 걸리지 마세요. 생각이 자꾸 나걸랑 그대로 그냥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버려두란 말입니다. 버려두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할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붙지 않는 자리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괜히 고(苦)덩어리 속에서 그 의식이 들고나면서 괴로움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고 이러는 거니까, 즐겁더라도 그냥 빙긋이 웃고 말고, 괴롭더라도 빙긋이 웃고 마세요, 거기서밖에 해결 못하니까요. 이열치열, '네 속에서 나온 거는 네 속에서 해결해야지 딴 속에서 해결 못한다. 나는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어. 네가 무체(無體)로서, 즉 말하자면 큰 부처로 보이더라도 난 거기에 속지 않아.' 이렇게 속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전자의 종 문서에 의해서 자기가 한 것대로 짊어지고 나온 데서 들고나는 것에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좋은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고, 말하자면 세 가지를 똑바로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는, 말 · 뜻 · 행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진실한지를 알게 되면 그냥 따르라고 그랬지,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따르라 이거죠. 나도 마찬가집니다. 왜 따르라고 그랬느냐. 그건 당신네들 주인공 안에 나와 더불어 같이 모두 일체 만물만생이 다 같이 한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생각이 자기를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묘법이 스스로 돼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창살 없는 감옥에다가 옹쳐매 놓고 있고, 병자로 옹쳐매 놓고 있는 거지 누가 병을 갖다 준 겁니까, 뺏어 갑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달린 거예요. 과거 자기가 한 대로 문서를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가난과 병고와 그 모진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 생각에 그 고통과 그 문서를, 종 문서를 한꺼번에 태워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아셔야 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처님 법이 주어지는 거죠.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이다' 이런 노래 아시죠? 아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화가 나면 그 노래를 부르세요. 그러면 그 화가 다 없어지죠. 화나면 주인공에다 맡기시고 화내지 마세요. '화내게 하는 것도 너다. 화 안 나게 하는 것도 너야. 즐겁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관하세요. 아셨지요?

☞26면으로 계속

한글한문(겸용) 불교상용의식집

실무자 스님이 염불 한글화 하여!
"염불자가 경전의 내용을 알고 염불하는"
《의식집》을 만들어 소개합니다.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우리말염불(경전 내용으로 구성)을 염불자가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 할수있게 만들었습니다.

②우리말 염불화를 하기위하여 한문의 (음)만 달은 것이 아니고 경전의 내용을 염불로 구성하여 편찬함으로 염불을 하면 자동적(주입식)으로 경전공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③의식의 분야에 따라 각각 5권으로 분류하여 염불내용을 위주로 조직하여 책의 분량을 줄여서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④염불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운)을 최소한 적게하고 실무차원에서 염불자의 작은 애로 까지도 배려하여 초보 집전자도 편안하게 집전 할수있게 하였습니다.

⑤염불의 한글화는 우리 불교의 과제인데 염불하는 방법을 한부분 소개한다면 "삼청을 하는 청사를 "2청은=한문염불(기존염불)로 하고 "1청은=우리말염불(한글염불)로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한글화 할수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확신 합니다.

구 성

• 제 1권 : 예경:각청편 • 제 2권 : 천도:시식편
• 제 3권 : 수계:방생편 • 제 4권 : 장의편
• 제 5권 : 점안편

(이상 5권이면 기본염불 완료) 총 5권 특별보급가 67,000원

앞으로 상용의식집을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용의식집을 보신 후 격려전화를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묵 합장 -

문의 전 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
(농협 : 211012-52-203756) 박명덕 ※각권 별도 구입 가능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대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기도의 비밀"은 불쌍함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삶의 절망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을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것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세상살이 장벽에 부딪혀 오갈 때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보듬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현제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마음과학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성취 기도 법이다.

"비밀의 열쇠"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이미지를 품기만 해도 그와 비슷한 형태를 불러온다. 욕망은 원하는 것들을 연결해주고, 기도는 그것을 끌어당긴다.

이 책에는 비밀을 활용해 건강과 부와 행복을 거머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끌어당김법칙"을 공개하오니 기도 성취를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담 지음
신국판 | 292쪽 | 15,000원

"기도의 비밀"?

국민은행 562101-01-033348 | 관음정사 02-943-8573

· 찾아오시는길: 4호선 길음역 3번출구 - 정릉 청수장가는 버스 - 웰미리마트 3거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관음정사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부처님의 말씀을.. 스님의 법문을..
작은 공간에 영원히 간직 하세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획을 비디오 촬영,
영상 제작하여 저렴하게 보시하겠습니다.

풍경 영상 기획 사업부

사찰홍보, 사찰행사, 자서전(다큐멘타리)
단체 사찰성지순례, 스님 강의, 법문

• 약력 : - 한국비디오 작가 연합회 정회원
- 한국디지털 비디오 영상 편집실 실장
- 방송 아카데미
- VJ특공대
- KDV 경남본부장

풍경영상기획 055)755-2695, 746-2778
※ 신문구독 신청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055)867-0776